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2 년 1 월 26 일

CUOMO 주지사, SHOREGROUP, INC.가 중부 뉴욕에 남아 확장될 것이라고 발표

300 여개의 고임금 일자리가 창출 및 유지될 것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전국 유수의 IT 시스템 관리 제공업체인 ShoreGroup, Inc.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서비스 업무를 Onondaga County 에 유지 및 확장하고 2016 년까지 200 개의 새로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ShoreGroup 의 확장은 고향에서 성장한 업계 선도적 기업이 뉴욕주에서 그 뿌리를 강화하고 성장시키는 또 하나의 예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민간 제휴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우리는 주 자원을 활용하여 커다란 투자를 생성하고 뉴욕주 북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의 Excelsior 세금감면으로 3 백만 달러를 활용하여 이 회사는 214 만 달러를 투자하여 Syracuse 에 있는 기존 7,600 평방피트의 임대 사무실을 15,000 평방피트로 확장할 계획인데, 다음 5 년 기간 내에 23,000 평방피트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 개의 새로운 고임금 일자리 창출 이외에 이 확장으로 회사는 만약 이 프로젝트가 뉴욕주 바깥에서 구현되었다면 잃었을 위험이 있는 98 개의 일자리를 포함하여 현재 북부 뉴욕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서비스 직원 113 명 전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뉴욕은 10 여년 동안 우리의 본거지였으며, Syracuse 지역은 소프트웨어 개발 인재가 풍부한데, 특히 Syracuse University 주변 지역이 그렇습니다"라고 ShoreGroup 의 CFO 인 Alan Bendes 가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CaseSentry 네트워크와 애플리케이션 관리 플랫폼은 Syracuse 에서 탄생되었고 계속 여기서 꽃피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세계에서 다수의 대기업에 의해 동급 최고의 솔루션으로 선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채널 파트너들에 의해 그들의 기업 연락 센터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선택되는 솔루션으로 선택되어 이제 산업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당사가 우리의 성장 계획을 NY 에서 달성하기 원함을 말, 행동 및 인센티브로 명확하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가망 장소를 고려하기 보다 여기서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기로 확실하게 결정하였습니다."

Robert Duffy 부지사는 "우리는 ShoreGroup 의 인재풀 및 투자 달러가 뉴욕에 남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른 주에 뺏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ShoreGroup 은 뉴욕에서 우리의 성장 기업들

하나로 계속 빛나고 있으며, 곤란한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본 투자금을 가져오고 고임금 일자리를 추가합니다. 우리는 ShoreGroup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도 여기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의 사장, CEO 겸 커미셔너인 Kenneth Adams 는 "뉴욕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Cuomo 지사의 노력 덕분에 점점 더 많은 선도적 뉴욕 기업들이 여기 남아 여기서 성장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ShoreGroup 이 우리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우리 주가 필요로 하는 성공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의 전형이기 때문에 ShoreGroup 에 대해 수 백만 달러의 10 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영진들이 더욱 활기찬 북부 뉴욕 경제를 위해 다년간 길을 선도할 것을 기대합니다."

2011 년 여름에 ShoreGroup 은 Syracuse 소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서비스 조업을 확장하기 위해 급속하게 증대되고 있는 니즈와 관련하여 Empire State Development 와 토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사가 뉴욕시에 있고, 영업소는 20 여 주에 걸쳐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어디서든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애초에 확장 프로젝트를 주 바깥에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ESD 가 개발한 인센티브 패키지에 근거하여 이 회사는 조업을 Onondaga County 에서 확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회사가 생성한 이익을 판매인력 확충 및 Cisco, IBM, Verizon 같은 업계 유수의 글로벌 플레이어와의 계약 확보에 재투자한 결과, 고용이 지난 2 년 내에 폭발하였는데, 113 명의 전문가들이 Syracuse 에 주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다음 5 년 내에 추가로 200 개의 고임금 전문가 일자리를 그리고 그 다음 5 년에도 유사한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John DeFrancisco 상원의원은 "본인은 ShoreGroup, Inc.의 확장을 축하하고 Cuomo 지사가 뉴욕주의 소기업 번영을 촉진한 데 대해 그를 칭찬합니다. ShoreGroup 은 성공적 소기업이 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증합니다. 즉, 베테랑이 운영하여 무에서 일으켜 세우고 불굴의 노력으로 그 분야의 리더로 부상하였습니다. ShoreGroup 같은 지역 소기업들은 중부 뉴욕 경제의 중추이며 뉴욕주의 경제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본인은 다시 한 번 ShoreGroup 의 소유주와 직원들을 축하하며 그들에게 비즈니스에서 다년간의 성공과 번영을 기원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Sam Roberts 하원의원은 "조업을 Syracuse 에서 유지하고 확장하기로 한 ShoreGroup 의 최근 결정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 지역 경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부 뉴욕의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을 계속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확장은 우리 지역에 필수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로 가족들이 의존하는 고임금 일자리를 유지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

아래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Korean